

# 비엔날레, 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민화를 몇 년째 배우고 있는 그녀가 얼마 전 직접 그린 작품 한 점을 보내왔다. 그림 속에는 풍염(豊鹽)한 모란 몇 송이가 아름다운 자세를 뽐내고 있었다. 시(詩)도 쓰는 그녀가 굳이 모란을 택한 것은 '천란한 슬픔의 봄'을 마냥 기다렸던 시인 영랑을 좋아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에도 나는 '없이 사는 내가 애처러워서(?) 부자 되라'는 뜻을 담아 보낸 것일 거라고 제멋대로 짐작해 본다. 흔히 화중지왕(花中帝王)이라 불리는 모란은 부귀(富貴)의 상징이기도 하니까.

옛 그림에 등장하는 꽃이나 동물은 이처럼 어떤 소망을 담고 있다. 북을 기원하는 옛사람들의 기복(祈福) 주의가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벌써 30년 전 쯤이지만, '동양화 읽는 법'이라는 책을 처음 접하고 '아하 그렇구나' 탄성을 지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꽃과 나비가 그려져 있는 초충도(草蟲圖)는 부부 화합을 기원한 그림이다. 예전 선비들의 과거(科擧)에 대한 열망도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데, 개는 등딱지(甲)가 있기 때문에 장원 급제를 상징한다.

그림과 시(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아마도 상징과 비유를 사용한다는 것일 게다. 비유 중에서 가장 알기 쉬운 것은 비슷한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직접 비유하는 직유(直喻)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쟁반 같이 둥근 달'처럼.

하지만 '상징'의 경우 작가가 제자의도를 밝히지 않고 감춰 놓는다면 여간해서는 알아채기 어렵다. 다만 비유나 상징이 적절한가는 별개의 문제다. (네모진 쟁반만 많이 본 요즘 아이들은 '쟁반 같이 둥근 달'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작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독창적인 자기만의 비유와 상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가령 이번 광주비엔날레 출품작 중에 '일본군 성노예'라는 작품을 한번 보자. 일본군의 만행에 관한 증언을 적은 종이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네모진 종이 모서리는 모두 불에 그을려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작가는 전쟁에 불탄 삶

과 그 삶에 대한 증언조차도 불에 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역사적 기억이 쉽사리 유실될 위기에 놓인 것을 상징하고 있다 한다. 다시 말해 종이 불타고 재가 되듯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표현하고자 했을 수도 있겠다.

**다시 보는 '하늘과 땅 사이'**

하지만 작가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시나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은 순전히 독자나 관람객의 몫이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제1회 비엔날레 대상 작품 '잊어버리기 위하여'에 얽힌 일화는 지금 생각해도 슬며시 웃음이 난다. 2000여 개의 맥주병 위에 패션(나무 보트)이 얹혀 있어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바로 그 작품이다.

쿠바를 탈출한 난민들이 술을 마시므로써 고국을 잊고자 했던 상황을 상징한 것이었는데, 어느 노부부가 이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 "영감, 인자 그만 보고 갑시다. 오래 본다고 안다요? 다 배움이 깊어야 아는 법이제." "모르긴 뭘 몰라? 임자는 꼭 날 무시해야 쓰겠는가." "글쎄

이것이 다 뭣이요?" "뭣긴 뭐여. 인생은 맥주병 위에 떠 있는 빈 배란 말이제."

그때 그 작품을 이번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다. 한때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은 그것 말고도 또 있었다. 강연회 화백의 '하늘과 땅 사이' 연작 중 네 번째 작품이 20여 년 만에 '귀환'한 것이다. 1995년, 망월동 묘역까지 4km 길을 따라 줄지어 선 1200여 장의 만장이 바람에 나부끼고 가로수 사이에 꽃송이가 높이 떠 있는 모습은, 천진(天真)한 아이의 눈으로 보자면 참으로 장관이었다. 5·18 영령들의 위령과 천도를 상징화했다는 데, 아마도 설치미술(installation art)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야외 전시였을 것이다.

강 화백은 당시 민중미술인은 물론 여러 단체에 만장(輦)으로 사용될 찬을 보낸 뒤, 거기에 글과 그림을 쓰거나 그려오도록 요청했다. 또한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정음 어느 마을에 남아 있던 꽃송이를 거금 4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만장은 원래 '죽은 이를 슬퍼하여 지은 글이나 또는 그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기(旗)처럼 만든 것'이다. 주검을 산소로 옮길 때에 상여 뒤에 들고 따라가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풍속이다. (얼마 전 만

년 강 화백은 그동안 '골동품 하는 예'들이 수없이 찾아와 만장과 상여를 팔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고이 간직해 왔다고 회고했다.)

망월동 가는 길에 나부꼈던 그 만장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2018년 광주 비엔날레(아시아문화전당)로 옮겨와 관람객을 맞고 있다. 그때는 자체히 보지 못했는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이제 누구나 알 만한 유명 인사들의 글과 그림이 눈에 들어온다. 김근태, 임채정, 김상근, 도종환, 이소선... 그중에서 시인 신경림이 쓴 글은 필체가 유려해 요즘 유행하는 캘리그래피를 연상하게 할 정도다. 시간 잘 쓰는 줄 알았더니 글씨도 일품이다.

**탄성 자아내는 북한 그림들**

광주비엔날레에서 북한 작가들의 그림인 '조선화'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다. 조선화는 북한식으로 발전시킨 동양화인데 이번에 여러 작품을 감상하면서 감쪽 놀랐다. 체제 선전성이 강한 그림들만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의 정수인 주제화도 당

연히 있긴 했다.

하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산수화를 비롯해서 호랑이를 그린 동물화, 여기에 그동안 북한에서 전똥이 끊어졌던 것으로 알려진 문인화까지 나왔다. 북한의 산수화에는 뜻밖에도 파도를 주제로 삼은 그림이 많다는 점도 놀라웠다. 금강산을 주제로 한 두 점의 그림은 통렬한 개성으로 관람객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북한 미술의 다양한 장르와 표현력의 깊이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야심찬 기획'이라는 설명이 조금도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11월11일, 6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제 딱 3주거량밖에 남지 않았다. 좋은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 아직 가 보지 못했다면 빨리 서두를 일이다. 혹시 그림을 잘 알지 못하다 해서 망설이는가? 그럴 필요 없다. 그림에 대한 무지는 죄가 아니지 않나.

그러니 일단 가 보자. 가서 '맥주병과 빈 배' 앞의 그 할아버지처럼 보고 생각하고 느끼자. 문화시민으로서, 기본 사람과 가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느껴 보자. '소확행' -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거기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 광양항 혼잡도 전국 최악 '잠자는 화물'

선박 입항하고도 시설 부족 '12시간 이상 대기' 체선율 4.2% '인천항 3배'

국내 제2항만인 광양항이 선석 등 항만 시설 부족으로 선박이 입항하고도 화물을 내리지 못하는 등 체선율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양항의 선박 입항 후 대기시간(체선율)이 전국 주요항만 중 가장 길며, 인천항과 비교하면 체선율이 3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광양항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헌법재판관 취임**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신임 재판관 취임식이 열렸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국민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애, 이선애, 서기석 재판관, 유남석 재판소장,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조용호, 이석태 재판관. /연합뉴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원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광양항,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등 항만공사별 체선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광양항이 4.2%로 4개 항만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선율은 선박이 입항하고도 선석 등 항만시설 부족으로 하역 작업 등을 하지 못하고 정박지에서 12시간 이상 대기하는 비율을 뜻한다.

가장 낮은 체선율을 보인 항만은 인천항으로 1.3%였고, 이어 부산항(1.7%), 울산항(2.2%) 순이다. 광양항의 체선율은

2015년 3.6%, 2016년 3.7%, 2017년 4.2%로 급등했다.

체선율 상승은 항만공사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각 항만공사는 항만시설 부족으로 대기하는 정박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부 면제해주고 있는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3년간 총 17억 3600만원을 면제해줬다.

이는 최저 체선율을 보인 인천항만공사

의 면제 사용료인 4억2900만원에 비해 4배 이상 많다.

체선율이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면제 사용료도 2015년 4억 8600만원에서 2017년 6억7100만원으로 1억8500만원(38%)이 증가해 그만큼 손해를 봤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체선율 개선을 위해 2016년 체선 완화 연구용역을 수행해

단기 대책으로 아접안 및 하역시간 단축 등 부두운영 효율화, 중장기 대책으로는 대체부두 증설과 하역시설 개선 등을 세웠다.

체선율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301억원을 투입해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2022년까지 완공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세계 으뜸 여수 경도개발 일정대로 추진"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김영록 지사 면담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이 '여수 경도'를 세계 으뜸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 17일 전남도청을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난 자리에서의 발언이다. 이는 투자계약서 공개를 끝으로 그동안 특혜 논란을 뒤로 하고 경도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박 회장은 김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미래에셋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투자는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도 개발사업 참여는 기업의 이익 창출보다는 공익적 개발로 인식하

고 있으며 사회적 기여와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고향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나가사키 현의 하우스텐보스 테마파크 사례처럼 젊은 층 트렌드에 맞게 고급스럽고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시설로, 색다르고 품격 있게 조성하겠다"며 개발계획의 기본 방향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진입도로와 연륙교 문제 등은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남 남해안이 경도를 중심으로 세계적 해양관광단지의 메카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다.

박 회장의 도청 방문은 김 지사 취임 이후 처음이지만, 김 지사와 박 회장은 광주 일고 동문으로 김 지사가 4년 선배다.

/박정욱 기자 jwpark@

**임야**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바로합니다.010-3605-5000

**경매비법 전수**  
·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교육/임장비 1200만원(3개월)  
· 배우면서 단독/공동투자 가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 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내 아이의 미래를 바꿀 교육  
**글로벌 에듀센터**

순천 최대규모의 교육시설과 함께하실  
**사업자 분들을 초청 합니다!!**

글로벌 에듀센터는  
국제학교 개념으로 설립되는  
대형 융복합 학원 교육시설입니다.  
문의 : 02-502-8898 | 서울본사

**파격가 임대!!** ▶ 권리금 없이 시세로 임대  
(전세가능)  
1층 입점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문구점, 약국, 편의점, 인형점 등  
2층, 3층 Kids Cafe, 영어도서관, 스피치학원, 입시상담, 심리상담(치료), 유학컨설팅, 과학, 레고, 로봇 등

성심부동산 010-6665-7355 대표 김중호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는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항우회원 자녀 중에서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I. 지원 자격 및 선발 인원

- ◆지원 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항우회 회원 자녀 중, 중·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2017년 10. 1 현재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된 자에 한함
  - 영광군민 또는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주, 개인사항 등 고려
- ◆선발 인원 : 00명

II. 선발 방법 및 구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급쓰기 작품 1점 : 자작시, 수필, 생활문(장학생이 선발된다면) 등 형식, 내용에 구애 받지 않고 제출
- 구비서류 양식은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ihmygg 참고

III. 선발 일정

- 서류접수 : 2018년 11월 1일(목) ~ 11월 20일(화) 17:00까지
- 최종 확정 안내 : 2018년 12월 초순경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중서 수여식 : 2018. 12. 재광영광군항우회 송년의 날 (12월말 예정)

- ◆신청 방법
  - 우편 · 방문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우61903) 광주광역시 서구 유포로 100 (동천동 혜천빌딩 7층)
  - 전화 : (062)522-8422
  - 사무국장 임재강 : 010-8667-6143

IV.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재광영광군항우회회원은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의 사무국으로 제출